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Geomdan Prehistory Museum

http://sunsa.incheon.go.kr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고산후로 121번길 7 / 032-440-6790

교사용 가이드

검 단 선 사 박 물 관
Geomdan Prehistory Museum

선사시대로 함께 떠나요!

선사시대 마을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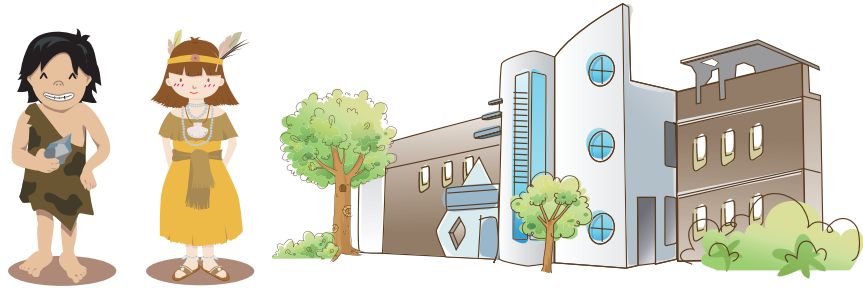
이곳은 검단선사박물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지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고, 먹을거리는 어떻게 얻었으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선사시대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유물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면 어렵기만 했던 선사시대가 흥미롭게 느껴질 거예요.

tip. 선사시대란?

역사시대 이전에 글이 없던 시대를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는데,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때를 역사(歷史)시대, 그 이전을 역사 이전이라는 뜻에서 선사(先史)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전 선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유물을 분석하고,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복원해낼 수 있지요.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하나, 전시실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아요.
둘, 눈으로 설명문을 읽어본 뒤, 손으로 만져보고, 머리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셋, 전시물을 자유롭게 관찰하고 만져보되,
전시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도록 해요.
넷, 음식물을 가지고 전시실에 들어가면 안돼요.
다섯, 체험이 끝난 전시물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제자리에 놓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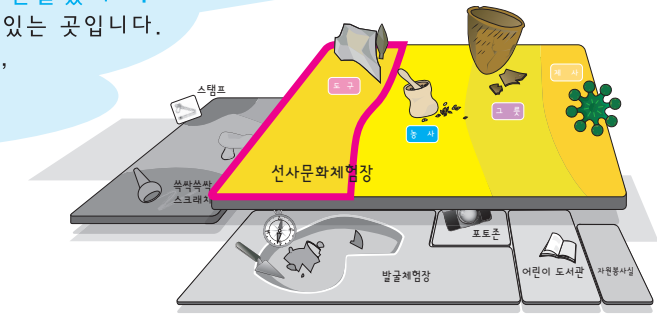
tip. 어린이들이 관람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리고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아주 먼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은 산이나 들에 있는 돌을 주워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쓰임새에 맞게 적당히 깨뜨려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돌을 깨뜨려서 만든 도구를 '뗀석기',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간석기' 라고 불러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사냥을 하거나 동물 가죽을 다듬어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나무를 베기도 했답니다.

tip.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처음에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나, 이후 잔손질을 하여 다양한 석기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는 작아지고, 점차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갖게 되었지요.(뗀석기) 이후 신석기시대가 되면 부드럽고 매끈한 돌에 석기를 갈아서 쓰임새에 맞게 더 날카롭게 만들거나,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다듬어 사용하게 됩니다.(간석기)

"선사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리고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코너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뗀석기와 간석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활비비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그림에서 선사시대 도구를 찾아보세요.

유아용 · 저학년용 정답

고학년용 정답

① 엄마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먹 도 끼

② 활비비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 도구였을까요?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였다.

주먹도끼 : 주먹도끼는 사냥을 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고기를 자를 때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즐겨 쓴 만능도구로, 대표적인 뗀석기 중 하나이다.

돌 도 끼 :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는데 사용한 도구이다. 이 시기 도구들은 돌만으로 된 것 뿐만 아니라 나무 손잡이 등의 목재 보조기구와 함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나무와 결합한 석기는 더욱 실용적인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 땅 속에서 발굴되는 돌도끼들은 돌부분만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 손잡이는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활 비 비 : 나무의 마찰열을 이용해서 불을 피우는 도구이다. 손으로 비벼서 피우는 방식(손비빔법)과 활을 비벼서 불을 피우는 방식(활비빔법) 등이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물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두운 움집의 내부를 밝히고, 짐승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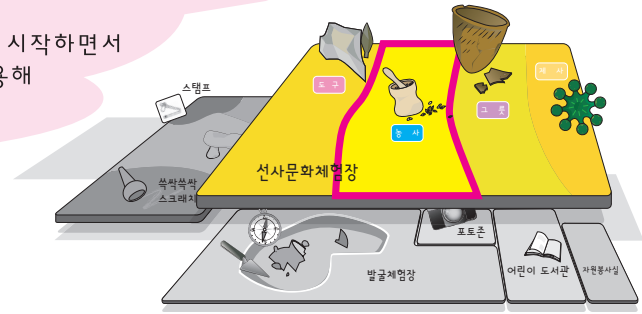
선사시대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농사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사냥으로 얻은 고기를 먹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게 된 후 가장 좋아진 것은 일정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때문에 열매를 얻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며 살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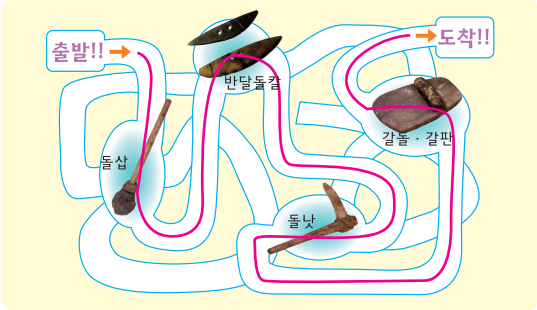
tip. 신석기시대가 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채집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먹을거리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식량의 많은 부분을 사냥과 물고기잡이, 채집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농사를 지었어요."
코너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농사도구를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갈돌 · 갈판을 이용해 볍씨를 갈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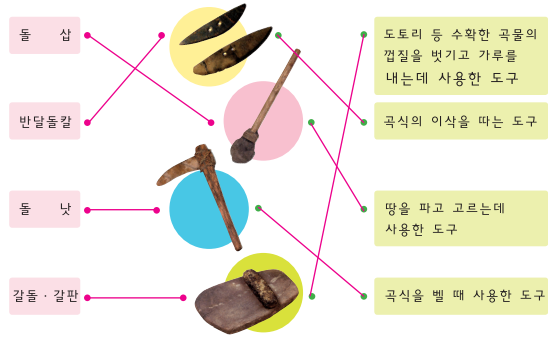
유아용 정답

여러 가지 농사도구들이 있네요. 미로를 따라가 보세요!



저학년용 정답

서로 연결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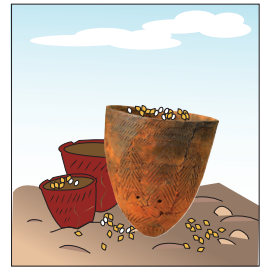
고학년용 정답

돌삽으로 땅을 일구고 있어요.

반달돌칼로 수확을 해요.

갈돌 · 갈판으로 껍질을 벗겨요.

토기에 저장을 해요.



① 선사시대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이삭을 땄답니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서 손에 걸고 수확을 했지요. 반 달을 닮았다고 해서 반 달 돌 칼이라고 불리지만 세모 모양이나 네모 모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② 선사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나무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한쌍이 되어 함께 다니지요. 오늘날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판이나 믹서기 같은 일을 했던 우리는 무엇일까요? 갈돌 · 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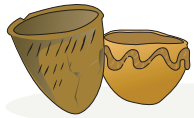
선사시대 사람들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했어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 구멍무늬 토기 등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중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그릇이에요.

표면에 생선뼈무늬나 손톱무늬, 톱니무늬, 점무늬 등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 무늬들은 뾰족한 도구로 긋거나 찍어서 새겼다고 해요.

tip.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그릇을 사용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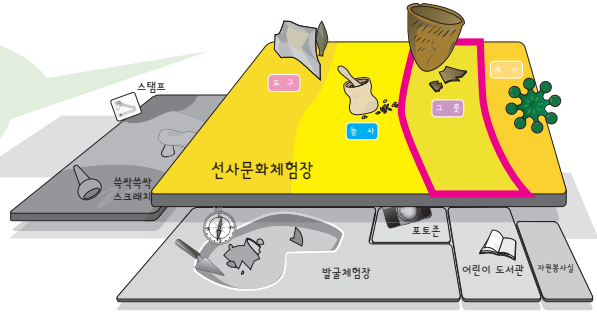
구석기시대에는 그릇이 없었고, 나뭇잎이나 돌에 담아 먹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신석기시대부터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그릇은 빗살무늬토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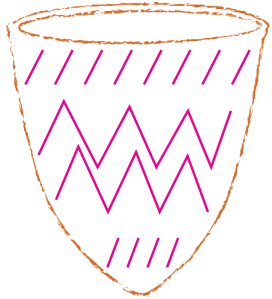
청동기시대에는 이전보다 다양한 모양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빗살무늬가 사라지는 등 겉모양이 크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닥 부분의 무늬가 없어지고, 이후 몸통, 아가리 부분의 무늬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감추면서 민무늬토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코너에서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무늬를 가진 토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함께 토기조각 퍼즐을 맞춰보세요.



유아용 정답

나만의 토기를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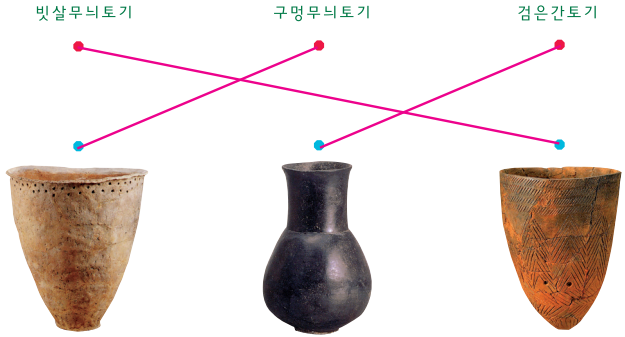


빗살무늬토기

토기에 여러가지 무늬를 그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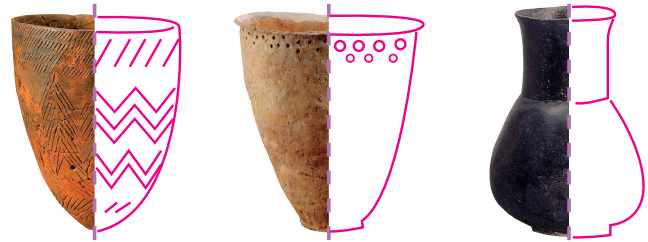
고학년용 정답

서로 연결해볼까요?



저학년용 정답

나의 반쪽을 찾아주세요!



빗살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검은간토기

덧무늬토기 : 토기의 겉면에 진흙띠를 붙여서 무늬를 만든 신석기시대 토기

빗살무늬토기 : 몸통에 빗금이나 생선뼈 모양 같은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구멍무늬토기 : 아가리 주위에 구멍모양이 있는 청동기 시대 토기

검은간토기 : 검은색 토기로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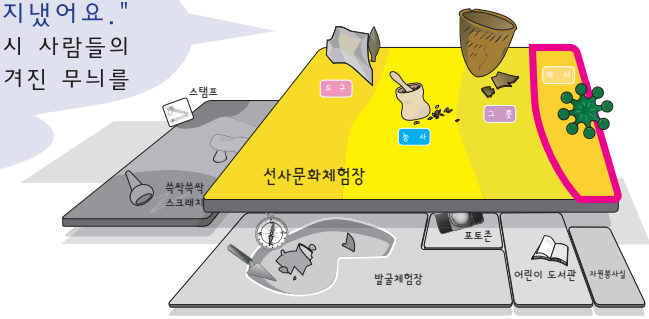
선사시대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농사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고, 사냥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은 사람들의 소원을 하늘에 전해주고,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신성한 존재였지요.

tip. 청동기를 만드는 데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했고, 대량으로 만들 만큼 재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청동기는 생활도구 보다는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나 제사를 위한 의기로 만들어졌고, 이것을 사용한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청동기시대라 하면 청동기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고, 오히려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보다 더 정교하고 다양한 석기를 쓰임새에 맞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코너에서는 청동기시대 제사장이 사용했던 의기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청동의기에 새겨진 무늬를 살펴보고, 청동방울 소리를 들어보세요.



선사시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옷 위에 청동방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과 방울은 지배자의 장신구이자 제사용 도구이다. 그림 속 제사장이 들고 있는 장대 위에 꽂혀진 것은 간두령으로 이것의 아래쪽 고리에는 수실 따위를 끼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사장의 옷에 매달려 있는 것은 팔주령으로 방울이 여덟 개 달려있고, 제사장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가지방울인데, 흔들면 소리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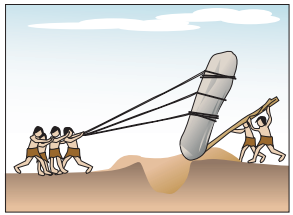
선사시대 유물이 나타났어요!

남방식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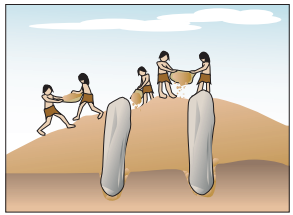
북방식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덮개돌을 얹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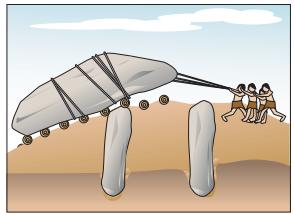
받침돌을 파놓은 구멍에 세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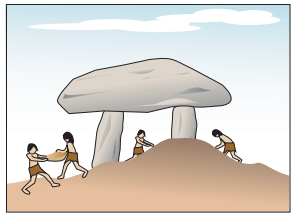
받침돌 주변에 흙을 쌓아요.



통나무를 이용해 덮개돌을 끌어올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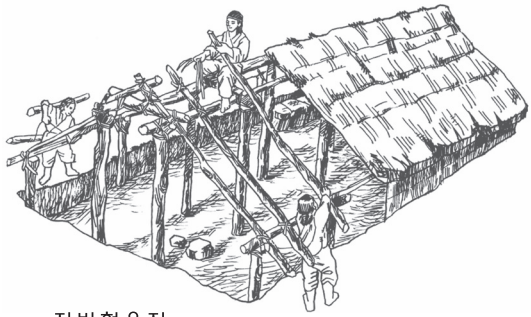


덮개돌을 얹은 후 흙을 치워요.



tip. 고인돌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입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덮개돌을 얹어서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수십톤에 이르는 거대한 고인돌도 있지요. 이렇게 큰 규모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무덤의 주인은 지배자였음을 알 수 있지요.

원형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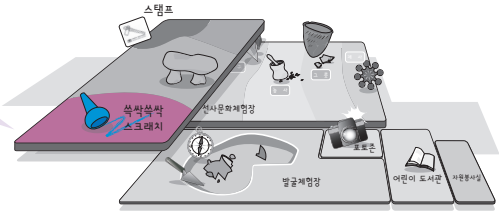


장방형움집

움집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땅을 파고 나무로 뼈대를 세운 후 그 위에 짚을 얹어서 지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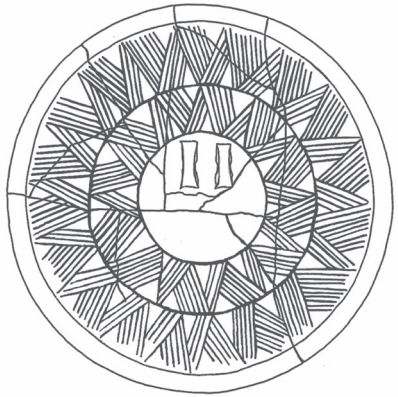
tip. 움집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입니다. 땅을 파고 나무로 뼈대를 세운 후 그 위에 짚을 얹어서 지었지요. 움집 안에는 대개 가운데쯤에 불을 피우는 화덕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리시설이자 난방시설이었습니다. 신석기시대는 대개 둥근 집자리(원형움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움집의 모양이 네모모양(장방형움집)에 가까워지고 크기도 더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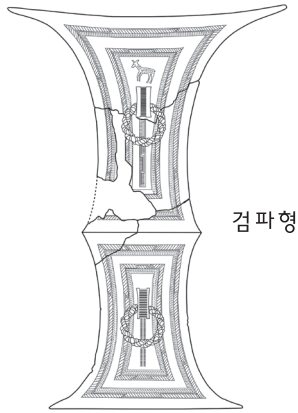
쓱싹쓱싹~ 선사시대 유물이 나타났어요! 는 스크래치 코너입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선사시대 유물이 나타났어요!

거친무늬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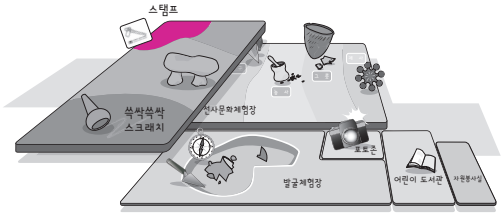
검파형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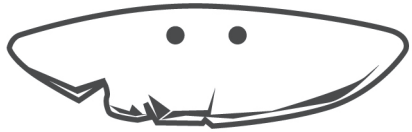
청동기로 만들어진 이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무늬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tip. 청동거울과 검파형(칼손잡이 모양)동기에는 동식물이나 천체무늬, 기하학 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예술감각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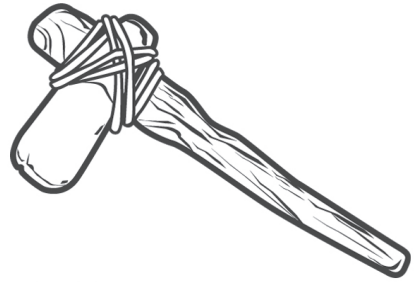
박물관 관람기념 스탬프를 찍어가세요!

어린이들이
관람기념 스탬프를
찍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반달돌칼



돌도끼

빗살무늬토기